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출생아 8개월째 증가

8월 67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늘어 난임부부 추가 지원...임신 성공사례도 급증

광주시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첫 증가로 돌아선 이래 지난 8월까지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의 위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 시 8월 출생아 수는 676명으로, 전년 동월 603명보다 12.1%인 73명이 늘었다. 이

로써 광주의 올 8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5천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975명에 비해 11.1%인 554명이 증가했다.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2천291명으로 지난해 8월 2만2천402명보다 0.5%인 111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 누계도 18만1천560명으로 지난해 8월 18만7천259명에 비해 3.0%인 5천699명 감소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저출산 국

복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시리즈 I·II·III를 발표해 추진해 왔다.

‘맘MOM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6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성가족재단과 6개부서가 협업체 28개 과제를 종합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한 광주형 난임부부 추가지원으로 임신성공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여성에게 17회까지 지원하는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여성에게 매년 4회까지 난임 시술비를 반복 지원하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자조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난임부부를 집중 지원했다.

지난해 650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3분기만에 지난해 성공사례를 초과한 702명이 임신하는 등 2년여간 총 1천35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와 임신부 지원 정책을 확대해 첫아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 320쌍에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도 자녀수에 따라 대출원금의 0.5%-1.0%의 이자를 차등지원 한다.

출산가정에 해피아미 건강간호사를

파견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며, 9월까지 3개월간 69명의 산모가 130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내년에는 임신부의 가사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출산 전 5개월부터 출산예정일까지 막달기간 동안 가사지원 또는 정리 수납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아부터 출생 축하금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포함해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3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종합정책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광주아이키움’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및 신규 시책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업 시장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건강하게 임신 출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충무시실에서 재해·재난 등 비상시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드론영상 시스템 구축 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민·관·군·경, 재난재해 대비 드론 영상 공유시스템 구축

광주 민·관·군·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충무 시실에서 국가정보원 지부, 육군 31보병사단, 광주경찰청, 공군 1전투비행

단, 소방본부, 331 군사안보 지원부대, 민간 드론 운용단과 드론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은 광주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제센터를 두고 활용용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현장으로 즉시 날아가 실

시간 영상을 시 종합상황실에 전송하는 형태다. 테러·재난·통합방위 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 지진·산불 등 자연재해, 각종 사고 대응 효율을 높여려는 것이다.

참여 기관들은 지난 3월 통합방위 회의에서 드론 운용 능력,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영상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 협업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구축 방안, 기관별 보안 사항 등을 정했다.

기존 분야별 시스템을 활용해 통합관제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신규 시스템 구축보다 4억5천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오승지기자

광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나선다

사전대비 실태 점검·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총력

광주시는 내달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예방과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자치구 사전대비 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해 ▲비상근무체계 ▲기

관별 협업체계를 체계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취약계층 관리체계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지역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 대책 ▲예방중심 홍보 및 자발적 시설 참여 활성화와 계획 등의 내용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겨울철 대설 한파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확보한 인센티브 5억원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12억원 원액을 투입해 ▲자동 제설장치 추가 설치 ▲제설차량 및 장비 현대화 ▲방풍 시설, 운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 ▲상수도계량기 동파방지책 구매 배부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등 시민이 체

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해 급변하는 재난현장 상황에 눈높이를 맞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적설취약구조물, 도로제설 취약구역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제설 자체 비축 확보 현황을 전수 조사해 대설 상황에서 차질없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폭설 대응 합동 훈련을 통한 개선 사항을 대설 한파 대응과 자연재난 행동요령에 반영해 대책 기간 중 적용할 방침이다. /오승지기자

전남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 역량 결집

TF팀 첫 회의...유관기관 협력 강화

전남도는 27일 “전남 수소산업 육성 TF팀” Kick-Off(Kick-Off) 회의를 전남도청에서 갖고 수소경제시대 에너지대 전환 정책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 수소산업 육성 TF팀”은 지난 8월 수소산업 분야 관련 도 분청 11개 과 14개 팀, 3개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과별 중점 추진사업을 살피고 정부 소관부처별 수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실·과 및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F팀은 앞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산-저장-운송-활용 분야와 함께 연구개발(R&D), 기업 유치, 정책 지원 등 7개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수소산업 육성 정책·소비 활성화 대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생산 분야에선 ▲내수 수소 산업

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 개발 등 8개 과제를 실행한다.

저장 분야에선 여수·광양항 탄소중립 항만을 구축한다.

활용 분야에선 ▲수소차·충전소 보급 ▲수소 시범도시 조성 ▲수소트램·고속도로 충전소 구축 ▲수소 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개발·실증 및 수소 활용 농기계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선 한국에너지공단,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전주기 인프라 구축 등 대형 R&D 연구를 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한국에너지공단 수소전문인력 등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며 “에너지공대 등 수소산업 전문기관과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남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수소경제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선관위 ‘꿈을 담은 민주시민캠프’ 운영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을 담은 빛고를 민주시민캠프’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시선관위와 지역아동센터 광주시지원단 간 협업을 통해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이달 말까지 학생들에게 연수용품 제공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토

론, 게임 등)으로 편성돼 광주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13곳, 총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와 정치에 대한 이해와 사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광주시지원단과 협업을 맺고 매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금리책판이 터졌다!

신협 플러스정기적금(현대카드연계형)으로
최대 연 7%의 이율을 받으세요~
(최소 기본이율은 연 2.0%)

기본이율 연 2.0% + 우대이율 최대 연 5.0%

당신의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신협 이용실적 등 자격요건 충족시
최대 연 7.0% 이율*을 제공합니다.**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최대 이율이 적용되며, 최소 기본이율은 연 2.0%입니다.

※ 신협-현대카드 신규 발급자 혹은 아래의 대상자 중 신협-현대카드 신규 발급자
① 카드발급일 기준 기존 현대카드 유효기간 만료자
② 카드발급일 기준 기존 현대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자
③ 카드발급일 기준 현대카드 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자

우대조건 안내		우대조건	우대이율
우대 이율 I	자동이체 연결	이 적금을 자유입출금서비스에 연결하여 자동 이체를 약정하고, 총 납입 횟수의 2/3 이상 자동 납입한 경우	연 0.2%p
	급여	직급의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 전월일까지 연속 3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연 0.1%p
우대 이율 II	신협-현대 제휴카드 이용실적	이 적금 가입일이 속한 월의 전월 초부터 익월 말까지 신협-현대제휴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발급일이 속한 월부터 연속 6개월 동안 총 100만원 이상 사용시	연 4.5%p
	신협-현대 제휴카드 결제계좌 등록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계좌를 신규 발급한 신협-현대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한 경우	연 0.2%p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중보인이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상담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일정 판매기간 경과 및 일정 계약 소산 시 자동 판매 종료됩니다.
 ※ 1인 1계좌에 한하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이자과세는 만기시 발생합니다.
 ※ 만기연장서비스는 실제 만기 지급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대이율은 우대조건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우대이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상용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상품의 만기 후 해지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 계좌에 담회, 가압류, 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가 지급 제한됩니다.
 ※ 이 상품은 신협에서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협 문맹크 또는 상품 취급조항, 신협 고객센터(1566-6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29호(유효기간 : 2021.10.22. ~ 2022.2.28.)

평생 어부바 신협